

근대여성사적 측면에서 본 단발의 사회적 인식변화 -개화기에서 1930년대까지-

전혜숙* · 임윤정†

동아대학교 의상섬유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동아대학교 의상섬유학과 대학원, 대학원생†

A Study on Changes of Social Recognition about Short-Hair(斷髮) from Perspectives on the Modern Women's History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to the 1930s-

Hea-Sook Chun* · Youn-Jung Lim†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Design, Dong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Clothing and Textile Design, DongA University†

(2004. 5. 4. 접수; 5. 28. 채택)

Abstract

Hair style is an expression of beauty for individuals and at the same time a clear social representation. It may be regarded as a means of knowing social recognition about social values and groups of the moment.

The hair style clearly discriminated so-called the new woman, emerged during Chosun's modernization, and the old woma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social recognition about the behavioral style of the new woman by relating them with women's movements and with changes in female education policies. Results of the study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new women in the 1920s were evaluated positive as those who were leading struggles against Japan and enlightenment campaigns. But between the 1920s and the 1930s, those women were thought to be negative in that they were appearance-oriented, extravagant and sticking themselves to reality.

Second, how a variety of social figures recognized short-hair(斷髮) was determined here through reviewing the mass media of the 1920s. At that time, some men were positive about short-hair(斷髮) like feminists while others denied the convenience of the hair style in life and were negative about the new women's individualism and pursuance of luxurious appearance.

Third, there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recognitions about short-hair in the 1930s, which were supported by the mass media of that time.

Key Words: the new woman(신여성), the old woman(구여성), short-hair(단발)

I. 序 論

인체의 여러 부위 중 머리부분은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위이므로 대인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대타성을 의식하여 형성하는 미적 표현의 산물로서, 사회적·미적 표현양식의 산물인 치장문화라고 볼 수 있다.

대타의식이 어느 부위보다도 강하게 나타나는 머리양식은 사회적 산물로서 시대마다 각기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전부터 행해지던 머리양식은 사회적 소속감과 동질성을 확인시켜주지만, 때로 이질적이거나 새로운 머리양식이 나타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반향과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머리양식이 단순히 개인적 미적표출의 차원을 떠나서, 사회전체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도 읽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즉 머리양식의 외형으로 나타나는 수발방법·형태·머리장식물 등은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관을 읽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서, 각 시대의 문화적 성격을 규정지어줄 뿐 아니라, 새로운 머리양식에 대한 각계의 사회적 반응은 찬·반을 떠나서 사회적 의식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개화기 또는 개항기라 일컬어지는 1900년대는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로 넘어가는 시기로, 그 이전시대까지 중국문화의 절대적인 영향권아래 있었던 문화가 개항과 함께 서양문화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니, 문화권이 다른 영향력의 결과는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면서 여성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이전시대에는 없었던 여성들의 사회적 공교육시작과 공교육확대로 배출된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여성적 역할의식의 변화 등 여성 자신들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여성들의 외적인 치장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치장문화 가운데서도 당시 여성들이 추구하던

머리양식의 변화를 보자면,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급격한 양식으로 변모되어 일부 여성들에게 유행하게 되면서, 긴 머리를 땅고 쪽을 찌던 結髮은 구시대 산물로서 서양문화의 영향력으로 공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여성들에게 외면을 받으며 斷髮이라는 새로운 머리양식을 하게 되니, 단발은 자의식 향상·전통적 봉건제도·인습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의지 표출로서, 일부 신문화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변화되는 의식을 빠르게 수용하는 남성들에게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그에 반해서 ‘身體髮膚는 受之父母’ 라는 유교적 가치관에 매여 장식방법만 변화시켜 오던 전통의 結髮은, 전통문화와 전통여성관을 상징하게 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니, 단발과 결발은 단순한 머리양식의 변화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전통문화와 대비되는 새로운 이질문화로 인식되어 양극화된 대비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니, 단발을 지지하는 새로운 개혁파와 대다수의 보수집단의 논쟁으로도 불거지기도 하면서, 당시 단발에 대한 엇갈린 시각과 인식차이는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당시 ‘新女性’ 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여성관에 편승하는 여성 집단은, 민족해방운동·여성해방운동·계급운동 등에 적극성을 띠우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외치던 신여성들 사이에 주로 유행하던 단발은, 새로운 서구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인 자들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결발은 전통적 가치관·구여성을 지칭하는 기준의 잣대가 되니, 당시 결발과 단발은 길이의 길고 짧음, 묶고 풀음의 단순한 머리 양식을 넘어서서 사회의 집단구분, 집단간의 가치관을 읽어주는 기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머리양식의 변화와 수용이 단순한 유행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의식의 변화와 흐름을 읽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므로, 서양문화수용의 시작이자 전통문화의 단절시기로 보는 개화기 이후 1930년까지 당시의 사회상황과 새로운 머리양식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의식을 통해서 20세기 초반 당시 한국의 사회상을 재조명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¹Corresponding author ; Youn-Jung Lim
Tel. +82-16-548-0952, Fax. +82-2-2290-2159
E-mail : selly2j@hanmir.com

첫째, 주로 단발이 여성교육의 전개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여성운동가들 사이에 유행했던 머리양식이므로, 새로이 시작된 여성 공교육과 여성운동의 성격이 변모되어 감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여성상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과 새로운 머리 양식인 단발을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먼저 근대여성운동과 여성교육의 성격과 변화양상을 시기별로 알아본다.

둘째, 과거 전통사회와는 다른 이질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새로운 여성관에 대한 인식과 단발과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대중매체인 잡지·신문 등에서 거론된 단발에 대한 기사를 발췌하여 단발에 대한 각계의 시각을 분석, 고찰한다.

연구의 범위는 근대 여성교육과 여성운동이 시작되는 1900년대부터 新女性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1910년~1930년대의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과 단발에 대한 사회인식의 관계성을 보고자하며, 연구방법으로는 당시 신여성에 대한 기사와 논설이 많이 실렸던 1920~1930년대 대중매체인 여성잡지와 신문을 중심으로 단발에 대한 기사를 발췌하여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II. 근대 여성운동과 여성교육의 변화

1. 근대 여성운동의 시작과 변화

19세기 말 개화기는 한반도 중주권을 둘러싼 주변국가와 서양열강 등의 외부압력과 내적 진통의 이중적 시련 속에서 근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진행되었고, 여성상에 있어서도 여성의 지위가 전통사회의 가정중심에서 점차 사회에서의 역할도 중시되는 여성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다.

19세기 일어난 민중항쟁과 천주교, 동학 운동 등의 본질은 전통사회의 지배 구조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한 반격이 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력은 여성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 전통사회의 여성관, 여성 활동에 대한 인식변화는, 이후 서양 외국 문물을 접한 개화파,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기관 설치 등이 제기되면서 한국근대최초의 여성운동단체인 <찬

양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여성운동은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주장과 여학교설립¹⁾·토론회·연설회 등 여성계몽의 활동과 항일 대중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니, 1905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에 항거하는 구국운동이 전 민족적으로 전개되면서부터 여성교육계를 중심으로 구국을 위한 애국적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양성에 여성운동의 목적을 두기도 하였고, 당시 여성계몽단체인 <진명부인회>는 國債報償運動을 통한 실제적인 구국운동을 전개하며 여성운동의 목적이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후 1910년-192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시기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민족해방을 위한 의병운동과 애국적 계몽운동이 펼쳐지고, 여성운동 역시 민족해방 투쟁의 성격을 띤 학교 중심의 애국운동으로 펼쳐지고 있었으니, 동경의 조선여자유학생들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1919년 3.1운동의 참여로 인한 <大韓民國愛國婦人會>,<朝鮮女子教育協會>,<勸友會>등의 여성단체²⁾가 생겨나는 등, 당시 여성운동의 최고목적은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운동으로서, 여성조직의 형성과 함께 범국가적인 차원의 여성운동의 성격을 띠며 여성 자신들에게 인간적·민족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20년-1930년대에 오면 일제의 수탈적 식민지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민족적·성적 이중 차별의식 가운데 여성운동의 방향이 전대와 조금 달라지면서, 미국 유학생들에 의해 수용된 자유주의 사상과 러시아혁명 이후 수용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여성운동의 성격으로 이분화 되어 나타나게 된다.

자유주의 여성운동은 자유연애와 결혼, 핵가족제를 바탕으로 여성해방·여성계몽교육·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전통여성상을 개선시켜 나가자는 취지로서 나혜석·김원주·김명순·윤심덕 등 동경 유학생들 중심으로 펼쳐졌으나,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사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며, 이 외에 김활란·김미리사·유각경·박인덕·고황경·송금선·배상명·이숙중·최은희 등이 여성교육운동가, 종교

운동가로서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³⁾.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자유주의 여권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1924년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세죽·박원희·정종명·허정숙·황신덕·백신애 등을 들 수 있으나, 일제의 심한 탄압으로 단명하거나 사상전환으로 인해⁴⁾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후 두 주류는 <근우회>를 통해 통합되기도 하였으나, 1930년대 들어서면서 대내외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 폐쇄되고, 일제 식민지 수탈정책이 가중됨에 따라 여성운동은 노동, 농민쟁의, 공산주의 지하조직에 들어가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현실에 순응하여 친일 행동을 하는 여성운동가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성격은 1910년대의 항일 투쟁적인 국가적 성격에서 벗어나, 두 주류의 서구사상을 바탕으로 여성해방과 여성계몽교육 등 전통여성상의 개선에 목적을 두는 운동으로 변화됨을 보여 주고 있으며, 1910년-1920년대에 걸친 여성운동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 비해, 1920년대의 여성운동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갈래로 나뉘어져 평가되며, 1930년대는 식민지 정책에서 오는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여성운동에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 근대 여성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여성교육의 변화

개화기 이후 시작된 여성의 공교육은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육기관을 시발점으로 하여 민간인 설립, 관 설립의 여학교 등이 세워졌으나, 여성교육기관의 건학성격과 교육목적이 각기 다르고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에 따른 여성교육의 목적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었으나, 각 선교단체나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그들의 머리모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항에서는 근대 여성교육기관의 특징과 교육의 목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선교계통에서 설립된 여학교와 그의 건학

목적 및 졸업생들의 활동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 감리교단의 의료선교사였던 M.F. Scranton에 의해 시작된 이화학당은 최초의 근대여성교육기관으로서⁵⁾,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 완전 무결한 조선과 조선인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출발하여, 김일엽·김활란·하란사·박에스터·이애라·유관순 등 많은 독립운동가와 여성교육운동가 등을 배출하였으니, 이들을 중심으로 펼쳐나간 여성교육과 애국운동은 사회전반에 여성관의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한국사회에 기독교를 전파하며 사회 각 분야에 여성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산파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교사 엘레스에 의해 건립된 정동여학당인 정신여학교도, 조선의 전통적 역사·문화·전통·풍속의 토대위에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건학 목적으로⁶⁾하여 여성지도자를 배출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성최초의 국회의원 방순희·독립운동가 김마리아·김필레·장선희·오현관·오현주·이성숙 등 개척자적 인물과 항일 독립 운동가들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6.10만세운동참여, 일제의 국어말살정책·신사참배 거부, <血誠團愛國婦人會>결성⁷⁾을 통한 독립운동 기금모금 등 전국적인 독립활동과 교육을 통한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을 섰었다.

이와 같이 선교계통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여성교육과 여성 계몽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정의여학교·일신여학교·정진여학교·배화여학교·호수돈 여학교·승의여학교·진성여학교·기전여학교 등이 건립⁸⁾되어, 여성독립운동가와 여성계몽운동의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이후 선교계 여학교 설립에 영향을 받아 민족자각운동에 의해 설립된 여학교들이 있었으니, 1906년 엄비의 교지와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된 진명여학교·숙명여학교·동덕여자의숙 등이 세워지면서 활발한 여성운동을 펼쳐나갈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사회는 급변하게 되어서 일본 식민지정책 하에 들어가게 되고 진취적인 여성계몽과 교육에도 변화가 오게 되니, 여성교육의 목적이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 영향과 통제아래 놓이게 되면서, 여성들이 가지는 사회인식에도 변화

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교육 받은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에 식민지 시대의 여성교육의 목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1910년 이후 일본의 황민화교육정책에서 오는 여성교육의 목표는 식민사회와 반봉건적 가부장권에 절대 복종하고 헌신하는 현모양처 양성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니⁹⁾, 제도상으로 볼 때, 먼저 학교명에 '보통학교', 1906년에는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칭, 1908년에는 <고등여학교령> 반포를 통해 조선여성교육의 최종학교를 고등학교를 설정하였다.

당시 제1차 <朝鮮教育令>에 나타난 여고보의 교육목표는 '여자고등 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 부덕을 기르고 국민의 성격을 도양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¹⁰⁾ 로 정하며, 技藝科 수업, 국어를 일본어로, 수업은 3년으로 정하면서¹⁰⁾ 복종형 여성상인 현모양처 교육을 이상형으로 제시하면서 식민통치의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중류사회, 가정을 배출하는데 여성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일본어 강요, 지식교육이 억제된 기예중심의 여성교육은 여학생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되면서, 동경 여자유학생들이 중심으로 만든 <女子界>는 3.1운동을 전 후로 여성들의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남녀평등과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해외 유학파나 국내의 종교·민간단체에서 설립한 여성교육기관을 통해 여성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¹¹⁾.

1920년대에 들어서면 3.1운동은 실패하였으나, 사회전반에 걸쳐 민족적 단결과 계몽주의적 기운이 창일하여 여성교육기관이 정규학교 이외에 강습회, 야학, 교회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제도상에도 일제의 식민정책이 제한적으로 완화되어 일본학제와 동일형식을 따르는 융화책이 사용되기도 하는 등¹²⁾이 시기는 근대여성사의 가장 격심한 변화의 시대로서, 여성교육의 기회확대와 더불어 '新女性'이라는 새로운 여성군상을¹³⁾ 배출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는 일본이 취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이 여성교육정책에도 영향을 주니, 제도상에서 민족적·성적 차별에 대한 불이익을 예로 들어 보면, 여고보 졸업자의 진학을 금지하고 허락되는 것은

사범학교의 강습과·연습과로 제한되는 등, 일본의 식민지 여성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적 저하와 상급학교 진학, 사회진출의 어려움으로 확대되니, 이후 여성교육은 신부 수업을 위한 장식품이나 결혼 조건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 시기 일부 신여성들은 교육을 통한 남존여비의 구습과 가족폐습, 사회활동을 통해 남성과의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였지만, 사회의 기대에 비해 신여성들의 사회문제 해결방법 및 실천 인식의 한계에 따르게 되면서, 사회적인 기대치와 역할에 대해 부족한 사회적 역할수행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신여성들은 식민지 제약 속에서도 여성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사회운동·학생운동·문자보급운동 등을 통한 항일민족운동과 계몽운동을 펼치는 선구적 역할을 감당하며 각계에 필요한 여성지도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해방 후 여성 활동과 여성교육의 밑거름이 되는 긍정적이 부분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선교계 여학교를 시발점으로 여성교육이 확산되고 나라와 여성을 계몽하려는 여성지도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으나, 1910년-193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서 온 현모양처 양성교육의 교육목표의 변화는, 사회적으로도 교육받은 여성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신여성상에 대한 인식이 긍정과 부정의 양극적인 대비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단발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의 관련성은 다음 항에서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단발의 사회적 인식과 변화

이 장에서는 1920년-1930년대 등장한 근대여성교육과 서양문화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신여성'이라는 사회적 집단이,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舊女性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실행한 '단발'이라는 행동양식이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사회 각층에서 바라보는 단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중매체인 신문·여성잡지에 실린 단발에 관한 글을 발췌하여 단발을 대하는 당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1. 1920년대 단발을 보는 시각

斷髮은 신여성들이 택했던 서구문물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모방되었던 행동양식으로서, 구시대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의식과 문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신여성들의 의지결단에 대한 표출로서, 단발이라는 머리양식을 통해 과거의 전통적 여성제도와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의식변화가 구체적 행동양식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발이라는 머리양식이 일시적 유행양식이 아닌 서구문물을 접한 여성들의 전통적 여성상을 거부하고 단절하며, 근대적 자아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가는 여성상을 제시하는 표식으로서, 근대여성사에 있어서 새로운 여성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단발과 양장으로 대표되는 외모의 서구화 과정을 보자면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른 입장을 볼 수 있는데, 남성의 단발이 전 시대 정부 주도하에 관료층과 도시인을 중심으로 강제로 단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여성의 단발은 여성 스스로 자발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근대교육과 서구유학 등 신문물을 접한 신여성을 중심으로 단발을 단행함이 특징으로써 인식변화가 먼저 되어진 후 나온 행동양식의 변화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발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단발을 하는 행위 자체보다도 단발을 한 여성들, 즉 서구식 외모를 추종하는 신여성들에 대한 역할기대에 따른 행동양식의 결과가 평가의 주가 되고 있었으니, 여성들의 단발은 조선의 전통과 가치관,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로 인식되었기에 부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단발은 1922년 서대문의 정측 강습소에서 한남권번 기생 강향난이 감행했다고 하는데¹⁴⁾, 그녀는 과거 애인의 변심이후 남자에게 의존하고 동정을 구하던 지난날을 잊고 남자처럼 살아 보겠다¹⁵⁾는 의지의 표현으로 단발을 감행하였고, 이후 유학을 다녀와 기자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니 강향난의 단발 동기는 조선조 여성상을 벗어나려던

의지와 독립의지의 표출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당시 단발을 한 여성(斷髮娘)들은 기생·여류문사·여배우·의사·사회주의자·여류주의자·계몽여성운동가·여성교육자등으로¹⁶⁾ 각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근대교육을 받은 직업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단행되었다.

단발이 등장하는 1920년대는 근대 여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여성 해방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시기로서,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뿐 아니라 강습소·야학·교회 등을 통한 여성의 교육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갔으며, 신여성이라는 사회적 용어가 정립되고, 최초의 단발 여성이 등장하는 등 신여성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또한 일제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 사용이 피함에 따른 女性誌와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활동이 자유로웠던 시기였기에, 신여성들의 상징적인 표식이던 단발에 관한 논란도 많았으니 각계에서 거론된 단발에 관한 시각을 발췌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여성 교육계 인사들의 단발을 보는 시각

아래에서는 1925년<신여성>誌에 소개된 각 학교 책임자들의「斷髮問題에 관한 是非?」를 발췌하여, 당시 사회지도층과 신여성의 배출기관인 학교책임자들을 통해 단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화전문학교장> 조정환은 “...여자도 단발을 하면 衛生上 좋고, 美觀으로도 조흔 줄 압니다.

또朝鮮옷에도 어울리라고 생각합니다. ...何如간 經濟上으로나 衛生上으로 좃타고 생각합니다.”¹⁷⁾

<동덕여학교장> 趙東植은 “단발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고 事業能率을 進歩케 한다. ...제도와 새는 變하는 것으로...단발은 衛生에도 좃코 便利하야, 事業能率이 進歩되고 經濟上으로 조흔 줄 압니다. 朝鮮婦人은 머리를 남 보기 조케만 하야 不經濟되고 弊害가 잇고 썩 實用的이 아닙니다...編髮은 在來의 習慣일 썩...創造性이 업습니다. ...”¹⁸⁾

<숙명여학교교주임> 山野上長次郎은 “斷髮이나 思想이나 化粧갓흔 것은 사람마다 各人의 趣味대로 取하는 것 임입니다. 女學校 썩 다니는 큰 處

女가 斷髮하는 것은 엇덜던지오…斷髮을 하게 되면 服裝도 함의 곳처야 될 것 같습니다.”¹⁹⁾

<배화여학교장> 金允徑은 “단발은 習慣의 變化를 가르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經濟上과 時間上으로 보아 꼭 必要하고…, 쪼여리가지 便利를 取하여 착는 것은 다 各 個人의 自由에 맏기는 것이 초홀듯합니다.”²⁰⁾

<여고보교장> 高本千廳은 <신여성>誌에서, “斷髮은 風俗이 變化하는 하는 것 임니다. 단발하는 것이 經濟上으로나 便利로보아서는 贊찬은 거 심니다…斷髮에 대하야는 쪼타하거나 낫부다는 것을 斷言할 수 업습니다.”²¹⁾

<진명여교부교장> 小杉彦次은 <신여성>誌에서, “나는 斷髮이라는 것이 …쪼타라고 생각합 니다. …현재에도 亦是그 各 個人에 하는 方法에 잘아 서 經濟的으로 할 수 잇고 衛生도 할 수 잇겠지오. 여하간 단발이라는 것은 먼저 率先하여 가지고 할 必要업스리라 생각합 니다. 쪼단발하면 衣服도 한 次 變 更 改 良 하여야 말 될 줄 압 니다.”²²⁾

이상과 같이 각 여학교장들이 보는 단발에 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발을 개개인의 취미에 따라 하는 것이지 사회전체가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시각으로 나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찬성하는 여학교장들의 단발에 대한 견해를 보면, 공통적으로 생활상에서 얻어지는 위생상·편리상·미관상·경제상의 利點을 들고 있으며, 이들의 이름에서 볼 때 대부분이 조선인임을 알 수 있고, 단발을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시각에서 사회전반의 시각과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소극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의 이름에서 대부분 일본인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단발에 대한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시각 차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당시 조선사회가 여성의 신교육에 대한 기대치와 신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도 부합되는 부분으로서, 식민지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애국활동, 국민계몽운동을 펴고 있는 신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단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시 조선인, 일본인 여학교 책임자들이 보는 단발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각국의 이해

속에서 단발 수용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계몽여성운동가들의 단발을 보는 시각

아래에서는 1925년 <신여성>誌에 소개된 「斷髮問題에 관한 是非?」, 1929년 <별건곤>誌에 소개된 男女討論 「女子 斷髮이 可한가 否한가」와 그 외 발췌된 계몽여성운동가들이 보는 단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계몽운동가인 金美理士는 “쪼끔머리가 아니고 트레머리라도 돈과 時間은 결코 작지 아니합 니다. …머리를 쪼는 다하면 우에 말씀한 폐해는 업서 질것임 니다. 時間, 돈, 위생 세 가지로 유익할 것이 며…생활, 사상으로 새로워질수잇게 될것임 니다. …적어도 머리에서 해방이 엇는 것임 니다.”²³⁾

<조선여류교육자>인 申알베트는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길러서 쪼을 쪼거나 틀어 메고 다니는 것이 맞치 남자가 상투를 쪼고 다니든것과 달를 것 무엇임 닐가…열른 쪼가서 갖든하고 활발하고 돈 안들고 손쉽게하는 것이 엇더케 초홀일이 겻슴 닐가. …도선 의복에도 서투루지 안코 초와보임 니다.”²⁴⁾

金活蘭 博士는 “…머리를 쪼지 안고 풀어 털치 고 사는데 하도 보긱실코 불편하야 … 쪼고보니 美로나 經濟적으로나 衛生上으로나 여러 가지 초 슴니다.”²⁵⁾라 하고, 1929년 「女子 斷髮이 可한가 否한가」에서는, “단발을 주장하는 이유로 첫째, 위생 상으로 좋은데…둘째, 時間상으로 경제적인데…셋째, 美的方面에서…외형적으로 보기에 좋고 넷째, 세계 大勢의 順應라는 것…다섯째, 여성해방의 唯一한 조건으로…長幼新舊간의 충돌이 없어질 것이다.”²⁶⁾

S生은 <신여성>誌에서 “…더욱이 우리 朝鮮에서 는 머리는 女子의 美니 化粧이니 하며 斷髮한것을 여간 나무레는 것이 아님 니다. 내가 머리를 쪼든 때는…○○녀학교 高等과 삼학년이기에 …그러 케 便한 것은 다시업 슴니다. …斷髮한것 우리 의 地位를 革新하는 時間에…風俗이나 習慣 그 모든 것은 時代를 쪼러 變化하는것임 니다. …樣式도 時代를 쪼러 合理하도록 하는것이 原則이라고 생각합 니다.”²⁷⁾

<동대문부인병원>의 玄德信은 “나의 단발은…

단순히 시간 경제로 보아서 짝근 것이기 때문에... 매일 머리를 빗는다는 것은 시간과 로동의 能率로 보아서 펴이나 절약해가지고 다른 것에서 유익할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²⁸⁾

이상과 같이 계몽여성운동가들이 바라본 단발의 시각은 교육계와 같이 단발이 가지는 利點을 들어가며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으니, 이는 여성들의 전통 結髮을 시대에 뒤쳐진 문명의 도태로 보며 새로운 문명의 수용으로 조선여성의 개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던 그들의 사상과도 연결되며, 단발을 근대화로 가는 수단으로서 여성들의 지위변화, 여성해방의 조건, 생활의식 개혁에 필요한 요소로 보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의 단발을 보는 시각

아래에서는 1925년 <신여성>誌에 소개된 「斷髮問題에 관한 是非?!」, <별건곤>誌에 발췌된 글을 통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이 단발을 통하여 보고자한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金起田은 “녀자가 머리를 깎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깎아노은 연후에 보면, 한바탕 우습거리밧게는 더 못될 것이다...”²⁹⁾

주세죽은 “...그러면 종래녀자가 斷髮하는 風習이 업섯지만은 今日에는 이것이 한風習으로 變하는 것을 보면... 더욱 便하고 또한 氣分이 좃코 머리 치장 하는데도 時間이 節約되는 여러 가지 便宜를 發見한 까닭... 斷髮을 反對하는 사람에 말은... 그 美야말로 부루주야지의 「慾望의 自由」에 對한 수단이 된다하면 속히 업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斷髮으로써 美의 표현이 적어지거나 업서지는 것은 아닙니다... 實生活에 鑑하여 便利하고 또한 衛生에 適合한 여러가지 利點을 發見한 까닭입니다...”³⁰⁾

허정숙은 “...習慣, 風俗이라는 것은 時代를 따라서 自然의 趨勢로 變遷되는것입니다... 斷髮한다는 것은 한 적은 習慣이 改良되는것밧게는 업습니다... 過去의 女性의美로 認定되던 것 結발은 女性自身의 人間의 蹂躪이오 人格上侮辱이라... 女性은 女性自身으로서는 斷髮하는 것이 엇더한 意味로 보던지 當然한 일이라고 想覺합니다... 내가 斷髮

한 후... 遠代한 理想과 慾望이나 원한 듯이 無條件으로 깎밧습니다... 斷髮! 社會的으로 여론과... 女性으로써 個個人의 趣味와 覺悟에 依하여 斷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³¹⁾

그러나 斷髮에서 다시 長髮로 되돌아가는 모습에서 허정숙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斷髮하였고, 다시 長髮을 하는데... 문제는 단발과 장발이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데 어느 것이 有利하나하는 그것 뿐이다... 環境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편한 點이 만다.”³²⁾

정철성은 “머리 깎근 것이 경편한 점이 만습니다. 머리를 빗기에 시간이나 로력이 덜 들고 늘 청결하여 위생에도 조호려니와 마음이 상쾌하고... 그런데 머리를 왜 길녓느냐 그것은 머리를 깎고보니 일반의 가정부인하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斷髮사상의 사람으로 취급해줍니다...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녓습니다...”³³⁾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단발이 가지는 이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데, 이는 과거 봉건적 여성상에서 해방되기 위한 방법으로 단발을 주장하지만, 단발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단발한 여자들의 수가 많지 않음이 문제시되는 것으로, 여성해방의 일환으로 단발을 적극적으로 주장·요구하고 있음이 보여 진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1930년대에 들어서 사회주의자들이 다시 장발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단발여성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과 편견, 소수의 신여성이 대다수의 구여성들의 동조성을 얻는데 실패한 증거로서, 당시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여성운동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4) 남성들의 단발을 보는 시각

아래에서는 <신여성>誌와 신문에 발췌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단발을 한 여성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긍정적인 시각

애국사회단체의 일원인 金俊淵는 “...여자가 머

리를 깎고 안 깎는 것은 전혀 그 사람 개인의 취미 문데인가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깎는 것이 편타고 하면 깎글 것이오 ··前에 우리 男子들이 상투를 잘을 때에 되놈의 풍속을 배우 너니 었저니 하고 썬들던 수작과 속 가튼 것입니다. 요컨대 여자가 머리를 깎고 안 깎는 것은 순전히 그녀 자신의 취미 문데입니다. 깎는 것이 자기 취미에 맞는다고 하면 언제던지 깎글 것입니다. 조금도 이상하게 별 다르게 생각할 문데는 못 될 것인가 합니다.”³⁴⁾

朴勝喆은 “여자가 머리를 깎는 것은 저 구주(歐洲)나 미주(美洲)에 잇서는 거희 레사로 압니다.··그 중 에서도 음악이나 연극가튼 예술을 도와하는 녀자는 의례히 깎는 모양입디다.··여자가 머리를 깎는 것은 사내들 이상으로 갖든하고 씨원하여서 도타고합디다.··”³⁵⁾

만문만화를 최초로 시작하고, 연극배우·무대 장치·미술평론가등으로 활동했던 안석주³⁶⁾ “··무엇이든지 변할 쟈에는·· 먼저 압서 나가는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그네들도 그래야만 하겠고 그것이 자기의 그것보다 편리하고 뜻있고 보기에 조흔줄 깨닫게되여다 ··그네를 쏘쳐잡니다.··성큼 잘너 버리십시오.··(斷髮의 利害와 必要에 대해서는) 트레머리는 얼굴에 맞고 안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를 잘느는(斷髮)것이 누구에게나 조홀것갓고 누구나 보기 조홀 것 갓습니다.”³⁷⁾

<新女性>誌의 一記者는 “여자와 남자에게 있어 인격상 대우와 외모형식에 대하여는 차별할 리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다만, 제도, 풍속, 습관의 관계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잇슬 썬이다.··남자가 단발한이 사회에서 잇서서 여자가 단발하기로 무슨 잘못이 잇스며 비난이 잇스랴··그 짜진 단발 문데 가튼 것은 우리 조선에 잇서서도 벌서문데 거리가 안이다. 문데로 삼지도 말앗스면 조홀 것 같다.”³⁸⁾

단발령으로 단발 경험이 있고 독립 운동가··시민운동가인 李商在는 “··세상은 참 잘두 변하오 남자니 여자니 할 것 업시 머리를 깎는것은 도흔 일이오. 위선제 몸뎡이 하나만이라도 개조(改造)를 해노코 볼 마링아니오.”³⁹⁾

또한 단발령을 경험하였던 閑道人是 “··머리를 깎는다거나 기르는 것은 한 풍속이니짜 이리케나 저러케나 편할 쟈로 할 것이지오 생각해 보지아는

일이여서 잘모르겡습니다”⁴⁰⁾

항일독립운동가인 朴思稷은 “··新思想이 들어오면서 생활의 樣式에도 변화를 일으켰는데 단발역시 必然의 勢로서··必要하다고 볼 수 있다.··”⁴¹⁾

<조선일보>신문에서는 “··단발을 하면 긴 머리를 살리고 잇던 영양은 썬분 머리에만 모히게 됴을 머리털을 위하 야는 조흔 것입니다.”⁴²⁾

이상과 같이 당시 남성지도자층들이 단발을 보는 긍정적인 견해는, 단발이 가진 이점 이외에도 여성들의 단발이 남성의 단발령과 같은 개혁의 결과물로 보며, 남녀의 차별성을 두지 않는 긍정적인 입장과 여성의 취미문제이고, 여성들의 단발을 처음 접한 사회적 관심과 비난은 당연히 거쳐 넘어가야 할 과정으로 보는 시각 등 다양한 견해와 함께 단발여성에 대해 격려까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부정적인 시각

1929년 <신여성>誌에 실린 남녀토론「女子斷髮이 이한가 쏘한가」에서 鄭鍾鳴은, “··단발은 조선의 일반사정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첫째, 여자가 해방 운동하는데 형식부터 개혁하는데··무엇보다도 먼저 단발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선전체의 事情을 모르고 하는 것으로서 ··첫째,··사회의 일을 爲하여 단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둘째··자주 머리를 감는 것이 시간적인 손해가 더 많다. 셋째··쭈진 머리가 뇌에 손상을 준다는 것 역시 억지이다. 넷째··斷髮시 여러 번 깎아는··소비가 생겨나기 때문에··”⁴³⁾

金秉濬은 “··머리를 땅아서 여러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여성의 보배인 머리채를 자르는 것을 美 라고 할 수 없으며··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여성해방을 부르짖는 데 단발을 하여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사회문제는 단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內的充實을 힘쓰기를 바람··”⁴⁴⁾

<별건곤>에 실린 「斷髮娘尾行記」⁴⁵⁾에서는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무슨 구경거리나 생긴 듯··송지 짜진 수탉갓구로··斷髮娘은 뒤에다 썬것을 붓치고 다니데 그러··머리카락치를 것붓치고, ··一定한 主義主張은 업고 一時의 虛榮인 것이 分明하여··엑크 단발미인!, 예크 主義者들!”⁴⁶⁾

이상에서 단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성운동가나 교육계·여성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단발의 이점을 반박하며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의 비난의 근거로「斷髮娘尾行記」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발한 여성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맞지 않음에 따른 실망감이 단발로 투영되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양식에 대한 평가와 외형과의 연관성 있는 평가는 앞의 여성운동과 여성교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여성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는 그들이 인식하는 외형적 모습에 반영되어 결국 행동양식과 외형 평가, 사회적 인식과의 관계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2. 1930년대 단발을 보는 시각

1930년대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여성운동이 분산되는 시기로, 교육계에서는 현모양처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저화와 교육이 결혼의 혼수로서 인식되어 지며, 이 당시 대공황의 경제위기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에 따른 신여성들의 연애·결혼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결혼을 통한 현실안주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연애이상주의의 퇴폐적 향락주의가 만연하니,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斷髮유행도 교육받은 신여성이나 여성운동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미국 유행파·카페 걸·여배우 등 직업여성들에 의해 유행되어가는 경향⁴⁷⁾으로 나타나며, 또한 경제적 불안과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 사용금지에 따른 女性誌와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발행이 제한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항에서는 당시 단발을 바라보는 사회각계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발행되고 있던 <신동아>·<동광>·<조광> 같은 민족주의 성격을 지닌 잡지에 소개되고 있는 단발에 관한 시각을 발췌해 알아보려고 한다.

<조선일보>의「낡은 것에 반항하라-간편우미 경쾌하다」에서는 “...단발을 하면 젊어 보입니다. 젊어보이니 씩씩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고리 깃등에 기름제가 못지 안아서 옷을 감절이나 오래 입습니다. 고무신에도 긴 치마에도 처음에 보면 이상한

듯한 그것이 더 보면 우미해 보입니다.”⁴⁸⁾

「미쓰코리아여 단발하십시오」의 무명씨는, “...현대를 3S시대(스포-쓰, 스파-드, 섹스)라고 부른 일이 있었지만...우리들의 세기의 첫삼십년은 단발시대로, 「뽀브」(단발)는 「노라」로써 대표되는 녀성의 가두진출과 해방의 최고의 상징, 「호르즌탈」 「쌍글컷트」 「뽀이쉬컷」 등 단발의 여러모양은 ...근대감각의 세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단발하려는 것은...엄매여 잇던 「하렘」에 아주 작불을 고하고...얌전하게 따서 내린 머리는... 이 시대에 뒤진 封建시대의 꿈이 흐릅니다. ...”⁴⁹⁾

KY생은, “여자 立場으로 보면 단발은 ... 實際生活에 편리하고 불편하고의 직접 생활에 關係되는 문제로, 단발을 하면 시원하고 편리 할 것을 왜 안해야 됩니까, 물론 사회 환경이라든가 가정환경이라든가 결혼문제라든가 ‘美’의 문제를 안해본 것은 아니나, ‘便利하고 合理的인 것을 안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一種의 反撥心이 단발을 斷行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斷髮을 理解 못하는 男便하고 결혼해야 무엇합니까... 단발을 찬성하는 사람도 막상 단발을 한 것을 보고는 感情이 말은 안듣는 모양입니다. ...내가 단발하면 자기도 하겠다는 동무도 꿈문이를 빼고 시비까지 하는 경향이 뵈입니다. ...나는 단발이 편리하고 좋을 것 같기에 하였습시다. 나는 단발이 사람의 理性과 感情과 또는 인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⁵⁰⁾

기독교 재단의 이화에도 1934년경에 처음으로 단발한 학생이 등장하는데, 초기에 단발을 한 학생들은 새로움의 시도로써 용감히 머리를 자르긴 했으나 부끄럽고 허전해서 수건을 쓰는 학생도 나타났으나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하나둘씩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였다⁵¹⁾.

이에 김활란씨는 “우리학교(梨花專門)에도 단발한 학생이 二三人 잇고 中等科(梨花高普)에도 몇 잇습시다마는, 나는 단발을 하라고 장려도 안하고 하지 말라고 금지도 안합니다. ... 그러나 단발은 자연히 많아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발로 돌아가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김활란씨는 비판하기를, “...다시 장발로 돌아가니奇怪的 현상으로 소위여성운동이니 떠들고 다니던 이들 모두 意識的이지 않고 氣分的이었던 것을

통탄스럽고 곧 그들은 우리 斷髮界의 先驅者이며 면서도 咀呪者라 할 수 있다.”⁵²⁾

牛灘生은 “단발의 利點으로 美容上으로 훨씬 젊어 보이고, ..얼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害點으로 경제상으로 짧은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잦은 이발을 해야하며 한복과의 어울리지 않아서, 한복의 改良이 어울린다. 또한 사회 일반적으로 斷髮에 대한 반대와 함께 周圍와 處地가 變化되지 않으면서 머리양식의 변화가 앞서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며, 당시 사회에서 단발에 대한 無視하는 경향에 접잡은 가정의 여성과 달리와 斷髮娘을 몹쓸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어 結婚문제에 있어서도 斷髮한 여성을 가정에서 반대와 천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단발을 하는 것도 好奇心에 의하기 보다는 利害關係를 잘 살펴서 必要하면 하고 그렇지 안다면 구태여 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⁵³⁾

이와 같이 1930년대의 단발에 관한 인식은 단발이 주는 생활상의 이점과 사람을 젊어 보이게 하는 미용적 장점, 단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해방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져, 여학생들 사이에 단발이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1920년 후반부터 나타나는 신여성들의 개인적 현실안주와 외형적 모습에 유해한 쫓는 허영적 여성상에 대한 인식이 1930년대의 신여성에 대한 사회전반에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어, 가정과 결혼관에 있어서도 신여성들이 구여성과 비교되며 외면당하는 여성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앞의 여성운동과 여성 교육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육기관의 증가로 인한 신여성의 양산은 신여성의 질적 저하와 함께,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문제 또한 근본적 사회개혁보다는 머리양식의 변화로만 이룩하고자 한 신여성들의 현실상황 인식부족과 구여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結 論

머리양식은 개인적인 미적 표현의 양식이면서도 강한 사회적 대타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시대와 사회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관과 집단을 평가하

는 사회적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집단에 대한 인식과 전통 가치관에 순종하는 집단과의 구별을 머리양식을 통해 구분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평가가 머리양식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서양식 가치관 추구집단인 新女性과 전통적 가치관에 순종하는 집단인 舊女性의 구분 갖대의 기준이 斷髮머리나·아니냐로 구분되며, 이들의 행동양식에 따른 변화와 사회가 받아들이는 인식과의 관련성을 여성운동과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관련시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교육에 있어서 초창기 기독교 선교계 여학교는 사회전반에 여성교육의 양적증가와 전통여성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주며, 애국·독립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여성운동가들을 배출하는 산파역할을 하였으니,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여성교육은 일제 황민화교육정책의 피해자로, 민족적·성적 차별에 대한 불이익과 현모양처 양성의 기예중심으로 흐른 여성교육의 질적 저하와 함께, 신여성들이 사회의 기대에 비해 역할수행을 잘하지 못함으로 신여성의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에, 많은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여성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각 분야의 여성지도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여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근대 교육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여성운동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일제식민지화에 대항한 애국적 구국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여성운동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1920년 이후의 여성운동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여성운동으로 나뉘게 되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교육관의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셋째, 단발에 대한 인식을 대중매체에 소개된 사회 각계인사의 시각적 차이를 통해 보면, 1920년대 여성교육계 인사들의 시각은 조선인과 일본인에

따라 시각적 차이가 보이는데, 조선인들은 단발의 利點과 애국·계몽운동을 펴고 있는 신여성의 행동양식에 따른 긍정적 시각으로 나타난 반면에, 일본인들은 단발을 개인의 취미문제로 단발을 통한 조선여성의 계몽운동이 구국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부정적 의도가 보이고 있다.

계몽여성운동가들은 단발이 주는 생활상의 이점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변화, 생활의식 개혁에 필요한 요소로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도 단발의 이점과 봉건적 여성해방의 수단으로 긍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20년말 이후 단발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구여성들의 동조성을 얻는데 실패로 여성운동의 한계성을 長髮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다.

남성지도자층의 단발에 대한 인식은 긍정·부정의 시각으로 나뉘어져, 긍정적 시각으로는 단발의 이점과 미용적 장점, 근대화로 넘어가는 개혁의 결과물로 보는 반면에, 부정적 시각은 단발의 이점에 대한 부정과 신여성들의 행동양식에서 보여주는 개인적 현실안주와 사치스런 외형적 모습에 대한 인식이 단발과 연결되어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넷째, 1930년대 대중매체에서 소개된 단발의 사회적 인식은 긍정·부정적 시각으로 보여 지는데, 긍정적 시각은 단발의 이점과 미용적 장점, 여성의 사회진출과 해방의 상징으로 여학생들 사이에 단발이 증가함을 논한 반면에, 부정적 시각은 신여성들이 현실사회를 외면하고 유행만 쫓는 허영적 여성상으로 인식되어져, 가정과 결혼관에 있어서도 신여성이 구여성과 비교되며 외면당하니 이들이 모방한 단발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여성에 대한 기대치와 그들의 역할수행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평가는, 새로운 가치관 아래 표출된 단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머리양식이 단순한 스타일의 변화추구에서만이 아니라 대타성이 강한 표현양식으로서의 기능을 근대여성사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머리양식은 사회의 식을 대변해주며 새로운 머리양식에 대한 평가는

당시 사회의 환경과 그 사회가 풍미하던 미적 욕구와 사상을 표출시키는 중요한 표현 양식으로서, 사회의식의 변화를 읽는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적인 행동양식의 지배 하에 드러나는 미적표출의 근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이배용. 한국 근대 여성의식의 변화-개화기에서 일제시기까지. *여성학논집 2집*, pp.232-233.
- 2) 강정숙 (1991). *한국근대 여성운동사*. 한국 여성 연구소, pp.280-284.
- 3) 강인순 (1988.12). 식민지 시대의 여성운동에 관한 소고: 1920년대를 중심으로 *加羅文化 6*, p.84.
- 4) 박진숙, 안연선, 이배용, 전미란, 조 형, 최숙경 (1992).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Ⅱ. *여성학 논집 8집*, p.18.
- 5) 최숙경, 정세화 (1976). 개화기 한국여성의 근대 의식의 형성. *논총 2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6-8.
- 6) 정신여자 중, 고등학교 (1989). *정신백년사(上)*. 정신100년사 출판위원회, p.109.
- 7) 趙芝薰 (1969). *한국민족운동사*. 韓國文化大系 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729.
- 8) 孫仁銖 (1975).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延大 출판부, p.24.
- 9) 幣原沮 (1918). *조선교육론*. 동경: 합작회사 옥맹관, pp.185-217.
- 10) 孫仁銖 (1975). *Op. cit.*, p.100.
- 11) 이배용, 안연선, 신영숙, 최숙경 (1993). 한국 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Ⅲ. *여성학논집 10집*, p.5.
- 12) 孫仁銖 (1975). *Op. cit.*, pp.166-172.
- 13) 鄭世華 (1971). 한국여성의 新文化운동: 1920년대 초기의 女性運動을 중심으로. *아세아 여성 연구10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p.333.
- 14) 別建곤 (1928.12). 觀相子. 第一먼저한 사람-斷髮을 제일 먼저 한 사람, p.79.
- 別建곤 (1927.11). 長髮散人. 斷髮女譜, pp.74-77.

- 15) 동아일보. 1922년 6월 22일.
- 16) 조 광 (1936.6). 歐米조에선 東洋結髮風逆輸入 “朝鮮 知識女性은 斷髮再騷動-트레머리 마나님들의 양키-결화인가?”, pp.400-402.
- 17) 신여성 (1925.8). 조정환. 단발하는 것은 좋습니 다, pp.37-38.
- 18) 신여성 (1925.8). 조동식. 단발한다면 반대는 안 켜줍니다, pp.38-39.
- 19) 신여성 (1925.8). 山野上長次郎. 個人의 趣味에 막힙니다, pp.39-40.
- 20) 신여성 (1925.8). 金允經. 낫분것이라고는 생각 지 않습니다, p.40.
- 21) 신여성 (1925.8). 高本千廳. 斷髮이 一般의 風俗 이 된다면, p.41.
- 22) 신여성 (1925.8). 小杉彦差. 일반이 贊成하게 되 면 좋타, pp.41-42.
- 23) 신여성 (1925.8). 金美理士. 斷髮은 머리解放을 잇는 것입니다, pp.42-43.
- 24) 신여성 (1925.8). 申알베트. 斷髮은 갖든하고 활 발하고 좋타, p.45.
- 25) 별건곤 (1928.12). 김활란. 女子斷髮 男子周衣, pp.31-32.
- 26) 별건곤 (1929.1). 여자단발이 가능한가 불가능에 대해, pp.128-129.
- 27) 신여성 (1925.8). S생. 여자로서 斷髮한 後의 實 感, 참! 便利하고 좋타, pp.49-51.
- 28) 별건곤 (1927.2). 玄德信. 내가 새로 實行하는 일-숫 까지 斷髮, pp.7-8.
- 29) 신여성 (1925.8). 起田. 우리의 머리 깎든 由來 를 들어 우리 一千萬女性의 心機一轉을 促 함, pp.34-36.
- 30) 신여성 (1925.8). 주세죽. 나는 斷髮을 主張합니 다-우리의 實生活에 빚추어 便宜한 点으 로, pp.43-44.
- 31) 신여성 (1925.10). 허정숙. 나의 斷髮과 斷髮前 後, pp.14-18.
- 32) 별건곤 (1928.12). 허정숙. 단발했다가 장발된 까닭, p.113.
- 33) 별건곤 7권. 정철성. 나는 왜 도루 長髮을 했나, p.21.
- 34) 신여성 (1925.8). 김준연. 各各自己의 趣味대로 -是非거리나 風紀問題가아니다, p.46.
- 35) 신여성 (1925.8). 박승철. 朝鮮도 斷髮이 風俗이 될줄안다-조흔일은 언제던지 실행된다, p.47.
- 36) 신명직 (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 문화연구, p.7.
- 37) 신여성 (1925.8). 안석주. 斷髮을 했스면 -美로 보아서더욱 좋타, pp.48-49.
- 38) 신여성 (1926.2). 一記者. 女性評壇, pp.18-19.
- 39) 신여성 (1925.8). 李商在. 내가 상투를 깎든재쳐 음 단발하던 分의 실감-斷髮했다가 또기르 고 또 斷髮, pp.51-52.
- 40) 신여성 (1925.8). 閑道人. 내가 상투를 깎든 처 새음단발하던 分의실감-勒斷聖髮罪로 死 刑 까지, pp.52-53.
- 41) 별건곤 (1929.10). 朴思稷. 여자단발이 가능한가 불가능에 대해, pp.131-132.
- 42) 조선일보. 1929년 12월 26. 머리와 단발.
- 43) 별건곤 (1929.1). 鄭鍾鳴. 女子斷髮이 가능한가 불가능에 대해, pp.129-130.
- 44) 별건곤 (1929.1). 金秉濬. 女子斷髮이 가능한가 불가능에 대해, pp.132-133.
- 45) 별건곤 (1926.12). 覆面子. 京城 名物女 “斷髮娘 尾行記” -아무리 숨기라도 나터나는 裏面, pp.69-74.
- 46) Ibid., pp.70-72.
- 47) 동 광 (1932.9). 무명씨. 미스코리아여 단발하시 오, pp.61-62.
- 48) 조선일보. 1931년 7월 4일. 낡은 것에 반항하라 간편우미 경쾌하다.
- 49) 동 광 (1932.9). 무명씨. Op. cit., pp.61-62.
- 50) 동 광 (1932.9). KY생. 단발한 感想, p.61.
- 51) 閔淑鉉, 朴海璟 (1981). 한가람 봄바람에. 이화 100년野史. 서울: 知人社, p.166.
- 52) 동 광 (1932.9). 김활란. 나는 斷髮을 이러케 본 다, p.60.
- 53) 신동아 (1932.8). 牛灘生. 斷髮是非論, pp.110-113.